디지털 용어 정리

레그테크(RegTech): 규율(Regulation)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 통제등의 규제 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 금융기관의 비용절감에 기여함

섭테크(SubTech): 감독(Supervision)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감독원의 주 업무인 감독과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돕는 기술

mmWave(밀리터리 파) : 물체를 감지하고 이러한 물체의 범위, 속도 및 각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감지 기술이다. 30GHz~300GHz 스펙트럼에서 작동하는 비접촉 기술이다. 이는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단파장으로 간주되며, 이 기술의 이점 중 하나이다. 현재 5G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대이다.

빅 블러(Big Blur) : Ai,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상

예)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최근 미국의 유기농 식품 체인점을 인수하고 무인점포까지 내는 등, 온라인 업체인지 오프라인 업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현상,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등장한 카카오가 현재 1000만 고객을 가진 은행의 주인이 된 현상

세포마켓(Cell Market):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1인 마켓을 뜻한다. SNS를 통한 공동구매를 포함하여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세포 단위로 유통시장이 분할되는 모습을 비유하여 cell Market, 세포시장이라고 부른다.

오피니언 마이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여론과 의견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 하는 기술. 텍스트를 분석하여 네티즌들의 감성과 의견을 통계/수치화하여 객관적인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구매 후기와 같은 많은 정보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묻고 답하는 방식을 넘어 이용자들의 생각과 표현의 파편을 모아 일정한 법칙성을 찾아내어 새로운 의견 형성을 발굴하고 탐사하는 방식이다.

Dialogflow : 구글에서 개발한 자연어처리 기반의 챗봇 개발 플랫폼.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엔진을 사용하여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기존의 챗봇 개발과 달리 구조화되고 예상가능한 Input만이 아닌 늬앙스 및 의미까지 처리가능.

Ping of Death :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범위 이상 크기의 패킷을 고의적으로 전송하여 발생한 서비스 거부 공격

파밍(Pharming) :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여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신종 컴퓨터 범죄 수법

스푸핑(spoofing) : 악의적으로 네트워크 침입자가 임의로 웹사이트를 만든 후, 일반 사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해서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해 사용자의 시스템 권한을 획득한 뒤 정보를 빼 내는 형태로 승인 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디지털트윈: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말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모의시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리테일 테크(Retail tech) : 소매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산업혁명 기반인 ICT가 결합하여 등장한 개념

예)무인점포•결제/챗봇/무인배송(로봇, 드론)/AR•VR 스토어/O4O

RFID : 전자태그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물을 정보단말기가 인식하고, 인식된 상황정보를 IT시스템(네트워크)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기술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 기업이 제품, 서비스, 지원, 지식 셀프서비스 등을 하나의 묶음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예) 제조업 HW 기반위에 서비스라는 SW 융합.

마이데이터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마이데이터를 이용 시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 및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 추천 가능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클라우드(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컴퓨터의 시스템리소스(IT 리소스)를 요구하는 즉시 제공(on-demand availability)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서버리스 및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Computing(컴퓨팅) : 계산.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컴퓨터 기술 자원을 개발 및 사용하는 모든 활동.

필터버블(Filter Bubble) :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필터링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

스몰데이터 :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 건강 상태, 생활 양식 등 사소한 행동에서 나오는 정보.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애그테크(Ag-tech) : 농업 ‘agriculture’ + 기술 ‘technology’ 합성어로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금융 용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1차산업인 농업을 혁신한다는 의미, 농업 전과정에 미래 기술을 도입해 최소 면적 대비 최대 생산량을 얻는 것이 목표

셰틀코인: 골드만삭스가 개발중인 가상화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하나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뛰어난 확장성)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클라우드 리소스의 유연한 사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Sand Box) :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신기술, 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가 법률 등의 장벽에 막혀 출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자에 한해 현행법상의 규제적용을 일시 풀어주는 것.

RPA: 로보틱 처리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는 소프트웨어 봇 또는 인공지능(AI) 워커(worker)의 개념에 기반을 둔, 최근에 만들어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 형태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관심있어하는 분야이다.

IPv6: IPv4를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

Scikit-learn : 파이썬에서 가장 유명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 분류(classification), 회기(regression), 군집화(clustering),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등의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한다.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질이 떨어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것. 정보를 단순히 축적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DB와 다름.

데이터베이스 샤딩(Database Sharding) :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수평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눈 후,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분산하여 저장, 관리하는 기술. 여러 서버에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비공유 파티셔닝 체계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어 새로운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성능과 확장성을 달성할 수 있다.

안토스(Anthos) : 구글에서 멀티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출시한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알려짐. 쿠버네티스를 이용해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용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리 수행.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IP 주소 할당 방법의 하나로, 기존 8비트 단위로 통신망부와 호스트부를 구획하지 않는 방법. 인터넷 접속 시 IP 주소는 A·B·C·D·E 등 5종의 등급이 있는데, 등급 C의 주소 공간을 기본 단위로 할당한다. 상세한 사항은 RFC 1519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정된 자원인 IP 주소를 쓸데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라우터의 처리 부하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ITIL(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Library):세계적으로 공인된 Best Practice (모범실무)를 제공하는 it서비스 품질모델이다. it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대한 현존하는 포괄적, 공개적 가이드로 itsm(IT서비스 관리) 분야의 업계 최고 실행 지침서이다. 프레임워크(기본 개념구조, 뼈대)는 service Deliver와 service support 로 분류된다.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 분산 병렬 컴퓨팅의 한 분야. 원거리 통신망(WAN)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을 하나로 묶어 가상의 대용량 고성능 컴퓨터를 구성하여 고도의 연산 작업 혹은 대용량 처리를 수행하는 것.

MRR(머신리더블 레귤레이션) : 기계로 금융 관련 법규를 읽고 규제준수 업무를 수행해 사람이 하던 준법감시 업무를 대체하는 것.

페이딩 : 이동통신에서 반사나 회절 등으로 전파의 전송경로가 다르게 되어 수신신호의 레벨 변동이 생기는 현상

마이크로 서비스: 마이크로서비스는 소프트웨어가 잘 정의된 API를 통해 통신하는 소규모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아키텍처 및 조직적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독립적인 소규모 팀에서 보유한다.

DT(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 사물(Autonomous things) : 인간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자동화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실제 디바이스다. 자율 사물은 대부분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선, 가전제품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디지털디톡스 (digital detox) : 디지털(digital)에 ‘독을 해소하다’라는 뜻의 디톡스(detox)가 결합된 용어로 세계적으로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방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CIH 바이러스: 입출력시스템(BIOS),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파괴해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듬.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도 함.

U2L : 주 전산시스템을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는것. 금융권은 안전성을 이유로 업무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단위 시스템에만 리눅스를 일부 적용했지만, 현재 리눅스의 전환이 늘고 있다. 리눅스 기반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드포크HardFork​: 기존 시스템의 블록체인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코인의 기존장부 기록방식으로 부터 블록체인암호Crypto화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난감한 불융합의​ 한계에 봉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인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블록Block 암호Crypto화와 새로운 블록Block 암호Crypto화가 융합을 거부하는 경우에 새로운 블록Block 암호Crypto화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체인Chain이 생성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 : 금전적 가치가 전자정보로 저장되고 거래되는 지급수단의 일종. 집중형 디지털 통화와 분산형 디지털 통화로 나뉜다.

집중형 디지털 통화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특정 용도의 소액결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아마존 코인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산형 디지털 통화는 중앙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법정통화에 대한 상대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며 비트코인이 이에 해당한다.

테크노포비아 :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공포감이나 적대감을 느끼는 것. 첨단 과학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결국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 불안감을 말함.

테크노필리아 : 과학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현대사회의 인간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

보이스 커머스 :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에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을 말하면 알아서 주문·결제해주는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더 편한 쇼핑을 제공할 수 있다.

프로그래매틱 바잉: 컴퓨터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검색 경로, 검색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광고를 자동적으로 띄워 주는 광고 방식이다. 프로그래매틱 바잉 시스템은 개인정보 대신 쿠키를 활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애드테크(Ad tech), 하이테크(High-tech) 광고라고도 부른다.

쿠키 :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를 재방문할 때,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자의 접속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기록이다.

테크핀(Tech-Fin) : 금융(Fin) + 기술(Tech) 의 합성어인 핀테크를 앞뒤만 바꾼 용어로, 핀테크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기술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이른다면 테크핀은 정보기술업체가 주도하는 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개념. ( 예 : 00페이 같은 간편결제나 간편송금 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

FIDO(Fast Identity Online) : 온라인 환경에서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식기술 기반 차세대 인증기술을 의미한다.

-ID/PW방식을 대체할 보안성이 높은 생체인식에 대한 수요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생체 인증 정보를 서버로 저장하는 것보다 해킹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DT(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등 정보기술의 확장으로 범용 인증 플랫폼으로 인해 성장 기대.

특징 : 생체정보를 단말에 저장하고, 인증 후 공개키 전송, FIDO 서버에서는 공개키 검증 수행. FIDO1.0과 FIDO2.0 차이점 존재. FIDO2.0은 모바일 뿐 아니라 PC 웹환경에서도 가능.(운영환경 개선)

안티포렌식 :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는 기술. 하드디스크의 경우, ‘물리적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안티포렌식 방식을 사용한다.

물리적 방식은 망치나 파쇄기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웨어 자체를 파괴하는 `디가우싱’(Degaussing)도 이에 해당된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데이터를 지우거나 기존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씌워 해독하지 못하도록하는 방식이다.

(참고)디지털포렌식은 PC나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SCM: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 재고를 최적화하고 리드 타임을 대폭적으로 감추가여 결과적으로 양질의 삼품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21세기 기업의 생존및 발전전략이다.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제조업체, 물류업체, 유통업체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거래업체들과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훨씬 더 극대화하였다.

오픈 아키텍처 : 플랫폼상에서 고객과 고객, 고객과 기업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적 요소인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시스템 또는 콘텐츠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외부의 개발자 및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온디멘드 서비스: 온디맨드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고객 중심에서 니즈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거래는 고객이 직접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마디로 온디맨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앳애니웨어(@anywhere) :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나 야후 같은 유명 사이트와 제휴를 해서 트위터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사이트상에서 최근의 트위터 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아스키코드(ASCII code) : 미국표준협회에서 제정한 표준 코드 체계로, 7비트의 데이터 비트에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8비트로 사용된다. 총 128문자를 표시하며 데이터 통신용 문자 코드로 많이 사용된다. 비영어권에서는 8번째 비트를 문자 표현 확대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데이터거래소 :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3월부터 시범운영 들어감. (주관-금융위원회 / 간사-금융보안원)

스니핑(sniffing) :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를 도청하는 해킹 유형의 하나. 수동적 공격에 해당하며, 도청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도구를 스니퍼(Sniffer)라고 한다.

지오펜스(geofence) : 지리(geography) + 울타리(fence)의 합성어

특정 위치에 가상의 경계나 구역을 만드는 기술

해당 위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록하거나 전달하며

정해진 동작을 수행 ( 예) 쇼핑몰이 많은 지역으로 진입하면, 쿠폰 정보를 보내준다)

스타디아: 구글의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제로 데이 :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성으로 아직 소프트웨어 업체가 수정하지 못한 부분을 일컫는 말

인슈어테크 : insurance(보험)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 서비스를 말한다.

디지털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IT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우고 온라인광고, 광고이용자 데이터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자 발생. IT기업의 소득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는 국가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020년 현재 중국,프랑스에서 CDBC 발행과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발행계획은 없지만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앰비언트 컴퓨팅(Ambient Computing) : 사용자가 특별히 조작하거나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주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컴퓨팅.

기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을 할 수 있었다면 앰비언트 환경에서는 기기 없이, 언제나 컴퓨팅 되고 있는 세상을 뜻함.

ex)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가 몸의 변화를 인식해 조명을 밝혀주고, 주방에 들어서면 커피머신에서 저절로 커피가 내려지고, 토스트가 구워지는 것. 차에 오르면 자동으로 안전띠가 채워지며 시동이 걸리고 알아서 경로를 선택, 자율 주행한다.

비트코인 블루 :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격 급등락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뜻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내기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무기력감, 우울증, 근로 의욕 상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감정기복이 심함.

HDF: 계층적 데이터 형식(Hierarchical Data Format)은 HDF Group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형식, 현재 버전은 HDF5, 파이썬에서는 h5py 라이브러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 가능, 검색 속도가 빠름, 병렬 입출력을 지원, 데이터의 무작위 조회가 가능, 20여년 이상 개발되어온 포맷으로 안정적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오늘날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느슨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듈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모듈의 구성요소를 ‘컨테이너’라고 지칭한다.

‘컨테이너’화가 되면 특정 OS나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인스턴스 패키징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단위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오케스트레이션’은 이러한 ‘컨테이너’의 구성요소와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작업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New Technology File System)

윈도우 NT 계열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 NTFS의 NT는 윈도우 NT와 비슷하게 새로운 기술이라는 뜻의 New Technology의 준말이다.

MS-DOS와 이전 버전의 윈도우에서 쓰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전 FAT 파일 시스템을 대체하였다. NTFS는 FAT와 HPFS(고성능 파일 시스템)을 거쳐 몇 가지 개선이 있다. 이를테면, 메타데이터의 지원, 고급 데이터 구조의 사용으로 인한 성능 개선, 신뢰성, 추가 확장 기능을 더한 디스크 공간 활용을 들 수 있다.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 대규모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개념으로 업무 상에 일 처리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로 판단하여 그 서비스를 네트워크상에 연동하여 시스템 전체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론이다. 업무 처리 변화를 시스템에 빠르게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IT 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NDN, (Named Data Detworking): 서버와 IP주소 기반인 기존 인터넷 전달망(효율적인 콘텐츠 분해에 취약)을 대체할 미래의 인터넷 아키텍처로 고려된다.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CCN: Content Centric Networking)동일한 개념. 인터넷 주소가 필요없이, 콘텐츠 자체를 네트워킹의 주체 entity로 사용함으로 써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져올수 있다.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광학 문자 인식으로,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이미지 스캐너로 획득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미지 스캔으로 얻을 수 있는 문서의 활자 영상을 컴퓨터가 편집 가능한 문자코드 등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로써 일반적으로 OCR이라고 하며, OCR은 인공지능이나 기계 시각(machine vision)의 연구분야로 시작되었다.

랜드 어택(Land Attack) : 공격자가 피해자에게 출발지 IP 주소와 도착지 IP 주소로 설정한 네트워크 패킷을 보내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유도하는 것.

소물인터넷(Integer of Small Things) : 저속, 저전력, 저성능의 특징을 갖는 사물들로 구성된 사물 인터넷.

멀티테넌시: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멀티테넌시(Multitenancy)' 아키텍처이다.

MR(mixed reality) :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환경이나 시각화등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실시간으로 현실과 가상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혼합 현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스몰 라이센스 :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도록 하는 제도. 금융업 인가 절차까지 도달할 필요없이 중간단계에서 핀테크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 핀테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

실버서퍼: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기기에 관심을 가지고 능숙하게 조작하는 고령층

다크데이터 : 정보를 수집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데이터. 사람의 몸짓, 함성, 목소리처럼 분석이 어렵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한다.

:: 활용처가 없어 버려졌던 다크데이터가 인공지능,센서 등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딥웹 : 검색엔진이 찾을 수 없는 모든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딥웹에는 다크웹이 포함되지만 이 밖에도 모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웹메일 페이지, 등록이 필요한 웹 포럼, 지불장벽(paywall)이면의 페이지도 포함된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미심쩍은 다크웹과 훨씬 크고 전반적으로 양성인 딥웹을 혼돈 하기 쉽다.

다크웹과 딥웹은 의도적인 숨김과 보안 또는 사용자 경험을 이유로 검색엔진으로 부터 페이지를 숨기는 것의 차이가 있다.

Libra(리브라): 페이스북이 2020년 발행할 계획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달러, 유로화 등과 일정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이다.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계좌가 없는 세계 약 17억명의 인구가 추가 비용 없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즉석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업계 전문가들은 일 이용자만 15억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신용카드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마존세: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판매세(Sales Tax)다. 온라인 사업자들의 세금이 면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소매상들이 피해를 본다는 차원에서 입안 논의가 시작됐다.

독싱(Doxing) : 해킹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로 ‘Dropping docs’(문서를 떨어뜨린다)에서 파생된 신조어. 주로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대상이 되며, 이메일, SNS, 온라인 게임등을 통해 공격이 이루어진다.

독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파일의 실행을 주의하고, 민감한 데이터는 업로드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 3법 : 과기정통부, 금융위, 행정안전부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금융위, 행정안전부등으로 분산된 관련 규제 권한을 일원화 하는 것.

딥뷰(Deep View): 시각지능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의 시각처럼 대규모의 이미지와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해하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학습에 의해 사물의 특징과 내용을 이해하는 직관적 사물 인식 능력과 낯선 장면이나 감춰진 사물을 인식 하기 위해 주변 상황을 유추하는 심층적 사고에 의한 인지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딥뷰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딥뷰(Deep View)의 3가지 기술적 포인트>

-객체의 학습 및 인식

-직관적 사물인식

-심층적 상황인식

AMR (Automatic Meter Reading):자동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검침원이 일일이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단말기를 이용해 검침 데이터를 읽고 컴퓨터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해 고지서 발급은 물론 수요 패턴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 Html 태그라는 특수 기호 사용하여 페이지를 작성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 양자 역학적 현상(중첩과 얽힘)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컴퓨팅 기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4진 구조의 큐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복잡한 작업도 순식간에 처리할 있음.

핵티비즘 : 핵티비즘(Hacktivism)은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의 합성어로, 정치적 해킹을 뜻한다.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민 불복종 운동, 온라인 행동주의 활동을 지칭한다. 핵티비스트들은 해킹 기술을 이용해 목표물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웹사이트를 무력화하는 활동을 한다. 대표적인 핵티비즘 조직으로는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있다. 핵티비즘 활동은 종종 불법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메시 와이파이(Mess Wifi) : 다대다로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유무선 공유기)와 증폭기가 부모-자식 관계로 연결되는 기존 와이파이와 다르게 동격의 액세스 포인트 확장이 특징이다. 하나의 SSID 사용, 가장 전파 상태가 좋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돼 트래픽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인터넷 전화) 기술 : 인터넷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이 가능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구축된 인터넷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공중전화교환망)에 비해 요금은 저렴하지만 기능 및 동작이 복잡하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개인이나 회사들에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중에는 모뎀을 이용해 인터넷 연결을 해주는 접속 서비스나, 회사를 대상으로 전용선 임대사업을 하는 ISP,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웹 호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웹 호스팅 프로바이더(WSP) 등이 있다. WSP는 ISP로부터 대용량의 전용선을 임대해 웹 호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다.

베이퍼웨어: 개발사가 출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끝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제품을 말한다. 수증기, 실체 없는 생각이라는 뜻의 합성어인 베이퍼웨어는 상품이나 기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되게 선전하는 경우를 뜻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일반 사용자 시장용 제품, 자동차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클라우드 :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다크 소셜 : 출처를 알 수 없는 온라인 트래픽.

마케팅 측면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메시지 앱, SMS, 이메일 등이 속함.

Ex)어떤 제품을 보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는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반면,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인 메시지 앱, 아니면 SMS 혹은 이메일에서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한 경우는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다크소셜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 인공지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간의 두뇌가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인지하고 처리하여 응용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델링한 기술

CPND : C(contents), P(platform), N(network), D(device)를 나타내는 약어로 사실상 현재에는 IT산업의 핵심적인 모든것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음.

CPND는 ICT 정부 구축 시 파생된 개념으로써 플랫폼(Platform) 하에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Network)

를 통해 사용자(Device)가 컨텐츠(Contents)를 제공받는 ict 생태계를 의미

스피어피싱 (Spear fishing) : 물고기를 작살로 낚는 작살낚시(Spear fishing)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해킹이 아닌 특정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빼내기 위해 행해지는 해커의 공격을 말한다.

::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해킹으로써 흔히 국가기관이나 주요 기업의 특정 기밀 정보를 탈취해 조직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큐싱(Qshing) : QR code와 Phishing의 합성어로, 스캔하기 전까지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단점을 이용하여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앗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을 탈취하는 금융사기 공격을 말한다.

은산분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까지로 완화했다.

MaaS(Mobility as a Service): 스마트폰 하나로 카셰어링뿐 아니라 철도, 택시, 자전거, 전동 스쿠터, 주차장, 라이드셰어, 렌터카, 숙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선호도를 학습하여 이용자 맞춤형 수단을 추천하기도 한다. 이동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교통혼잡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는 다음과 같다.

-교통수단을 한 곳에 모아야한다.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야한다.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해야한다.

-5G망과 딥컨트롤 기술이 요구된다.

Infodemics(인포데믹스):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의 발달로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지나치게 빨리 확산되면서 대중의 두려움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 전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전사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코인베이스 :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bitcoin),이더리움(ethereum),라이트코인(litecoin) 등 주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오픈 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이도 원하는 앱을 쉽게 만들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인 공개 개발 모듈 프로그램

멀버타이징(Malvertising) : 온라인 광고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감염시키는것.

X.25 프로토콜 : ITU-T에서 1976년에 패킷 교환망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X.25 권고안을 처음 발간하였다. 패킷형 단말기를 패킷교환망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로,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패킷 교환망에서 DCE(회선 종단 장치)와 DTE(데이터 단말 장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규정한 프로토콜이다.

챗봇: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단어나 구(句)의 매칭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챗봇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한 챗봇까지 수준이 다양하다. 챗봇은 채터봇(chatterbot), 토크봇(talkbot)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ERP :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통합시스템이다.

쇼단(shodan) :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이다. 쇼단은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일반 검색엔진과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캠: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거래처로 둔갑해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수법

빅데이터 3V : Volume(데이터의 양), Velocity(데이터의 입출력 속도), Variety(데이터의

다양성)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빅데이터의 3가지 특징 (+ 2V 를 더해 빅데이터 5V라 하기도 한다. 가치(Value) , 정확성(Veracity))

스마트 계약 (Smart Contract) :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 거래 등 다양한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뉴럴링크 : 일론 머스크 등이 설립한 미국의 뉴로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이식 가능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한다. 이 기업의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2016년 시작하였고 2017년 3월 처음 공개 보도되었다.

뉴럴링크는 신경 레이스(neural lace)’라고 부르는 기술을 개발한다. 생각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작은 전극을 뇌에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OPE(Order Preserving Encryption) : 순서 보존 암호화. 데이터베이스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원본 숫자 데이터의 크기와 동일한 순서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화 기술. 검색 속도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암호화 방법.

GDPR: 개인정보 보호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만든 법안. 개인정보주체자의 권리와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한 제도로, GDPR은 EU 역내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무엇보다도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규모가 크다는 점이 특징.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단일시장이 구축되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정보이동을 장려할 수 있음.

멤리스터(Memristor) : 전원공급이 끊어져도 직전 상태를 모두 기억하여 복원할 수 있는 특별한 메모리 소자로서, 메모리와 레지스트리의 합성어. 전류의 방향과 전류량 등과 관련된 직전 상태를 기억한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만든 소자. 예기치 못한 단전이나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안에서 진행 중이던 작업이 사라지는 현상을 상당 부분 예방 가능.

BYOD(Bring Your Own Device): 각자의 기기를 챙겨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약자. 영어의 BYOB(Bring Your Own Bottle)에서 유래. 스마트 기기를 각자 활용해야 하는 모임일 경우 Device를 챙겨 올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것.

BYOD 정책을 채택하면 기업은 해마다 하드웨어 교체비용, 기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율성 있는 문서열람으로 개개인 직원의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단 BYOD 정책이 실효가 있으려면 보안에 관한 이슈 및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OS 호환성의 문제로 실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있다.

Trackback(트랙백) :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글에 직접 댓글을 올리는 대신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글의 일정 부분이 다른 사람의 댓글이 보이도록 하는 것.

트랙백 글은 자신의 사이트에 있기때문에 내 용을 길게 하거나 동영상을 넣고, 표현을 수정하는 등 마음대로 편집할수 있다.

섬리(Summly) : 뉴스를 요약해 주는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세계 주요 언론사로부터 모은 기사를 400자 정도로 줄여 제공한다. 컴퓨터로 사람 언어를 알아듣거나 만들어 내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긴 뉴스를 요약한다. 관심 있는 소식일 때에는 본래의 기사를 볼 수도 있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채널을 융합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비지니스 모델. 배달의 민족, 직방, 쏘카, 야놀자 등이 대표적인 o2o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략망.

Auto scaling: 서비스 요청이 늘어나면 이를 수용하기 위해 서버의 수를 늘려 연산 능력(capacity)을 향상시키고 반대로 서비스 요청이 줄게 되면 불필요한 서버의 수를 줄이는 action을 말합니다. 서버의 수를 늘려서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scale-out이라고 하고, 반대로 서비스 요청이 줄어서 서버의 수를 줄여서 서비스 능력을 줄이는 action을 scale-in이라 합니다.

IPSec :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보안성을 제공하는 표준화된 기술로 AH와 ESP 두 종류의 보안 서비스를 통해 인증, 데이터 무결성 보장, 암호화 등을 담당하는 통신 기술.

SSL(Secure Sockets Layer) :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 보안면에서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상거래시 요구되는 개인 정보와 [크레디트카드](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1047&ref=y) 정보의 보안 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최종 사용자와 가맹점간의 지불 정보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다.

MSA :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개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쪼개어 변경과 조합이 가능하도록 만든 아키텍쳐. 배포, 확장, 장애에 강하다.

점진적 모델: 제품이 완성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보완되고 조금씩 추가되는 테스트.개발과 유지관리가 모두 포함되며 제품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완제품으로 정의. 이 모델은 폭포 모델의 요소와 프로토타이핑의 반복 철학을 결합

SaaS(Software as a Service) :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말한다.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이뤄진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쓸 수 있다.

PaaS(Platform as a Service) :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가상화 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완전한 개발 및 배포 환경이다.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종량제 방식으로 필요한 리소스를 구매하고 보안 인터넷 연결을 통해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하면 된다.

분산원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중앙원장기술과 반대로 중앙 서버나

중앙관리자의 제어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각 노드(개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계속 동기화하는 기술,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이지만 ‘합의를 통한 공유 분산데이터 베이스’ 기술이라 분산원장기술이 블록체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 : 학습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대화식으로 쿼리하여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서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있는 특수한 기계 학습 사례

ACN(Automatic Crash Notification) :

차량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에 관련된 기반 정보들을 가공,처리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메시지로 변환 한 후 다른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차 자동화 시스템

파이어 세일(Fire Sale) :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공격으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이버 공격.

1단계 : 교통기관 시스템 마비

2단계 : 금융망과 통신망 마비

3단계 : 가스,수도,전기,원자력 체계 마비

클레이튼(Klaytn) :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가 개발한 디앱(dApp·분산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그라운드X는 IT 강국인 한국의 기술로 글로벌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개발했다. 클레이튼을 창시한 그라운드X의 대표이사는 한재선이다. 2018년 9월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행사에서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가 클레이튼에 대해 발표했다. 15개 국가의 51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HMI기술은 과거 사용자가 기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와 기계가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ex) 차선 이탈 감지 솔루션은 자동차가 차선을 밟거나 이탈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대에 진동을 주어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데 멈추지 않고, 자동차가 직접 주행에 관여하여 브레이크를 동작해 정지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HMI기술은 자율 주행의 시초가 된다.

바이모달(Bimodal) IT : 미래의 IT기업 조직들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방법론을 병행한다는 의미. 한 마디로 하나의 조직에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IT접근법이 혼용된 조직 운영을 의미한다. 한 기업이 의미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을 위해 유효한 다수의 접근법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의 IT 사업은 비즈니스 유연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바이모델 접근법은 상충관계의 변수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 될 수 있다.

Thin Client :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PC 대체 컴퓨터를 말한다. 즉, 하드디스크 없이 네트워크 접속장치 기능만 가진 윈도기반 단말기(WBT)를 서버에 연결시켜 사용하는 서버기반 컴퓨팅환경을 말한다.

AB5법 : AB5(AssemblyBill5) 법안은 우버 기사와 같은 주문형 플랫폼 노동자의 법 지위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제로 데이 공격(zero day attack) :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이루어지는 보안 공격. 신속한 기술적 위협을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문제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개발자가 이를 보완하는 패치를 만들어 배포하여 대처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 공격은 대응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 방법이 없다.

미러링크 :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을 일체화하는 기술. 스마트폰의 음악 파일,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유무선 통신망을 거쳐 차량의 큰 화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스마트폰 같은 정보기기에 구현한 화면을 거울에 비추듯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에 그대로 연결하는 것. 정보기기 내 컴퓨팅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띄워 준다. 기기 간 화면·기능 모사(replication)로 이해할 수도 있다.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 : 절대 [시스템](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53283&ref=y)이 다운되어서는 안 되는 [하드웨어](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25166&ref=y)적 환경에 있는 근간 시스템.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53202&ref=y)이나 철도, 항공기 운행, [제어 시스템](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18990&ref=y) 등 단 한 번이라도 시스템이 다운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59996&ref=y)에 사용된다.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란 직접 기기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음성,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식을 말한다.

스머프 공격(Smurf Attack) : 목표 사이트에 응답 패킷의 트래픽이 넘쳐 다른 유저로부터 접속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

FAANG : 미국의 IT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의 앞 글자를 딴 용어이다. 미국의 경제방송인 CNBC의 짐 크래머가 애플이 빠진 FANG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애플이 포함된 FAANG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져 사용됐다. 한편, 넷플릭스를 대신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시킨 FAAMG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미들웨어 (Middleware) :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하드웨어나 프로토콜, 통신환경 등을 연결하여, 응용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간에 원만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크립토 뱅크(Crypto bank) :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보관하며 이와 관련된 예금, 대출, 이체, 인출 등 기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핵심은 해킹 등으로부터 암호화폐의 가상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탁(Custody) 기술의 보유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기존 전자지갑 사업자들은 수탁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및 규제가 없어 크립토 뱅크로 불리기 어려움.

cf) cryptocurrency bank, digital asset bank 등으로도 불림.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가 생성되는 네트워크 엣지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 이렇게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얻는다. 더불어 데이터센터까지 오가는 데이터 레이턴시(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음.

패리티 비트 :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추가된 비트이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각 문자에 1비트를 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2가지 종류의 패리티 비트(홀수, 짝수)가 있다.

스마트 브랜치(Smart Branch) : 미래의 은행 영업점 모델. ICT기술로 사람이 없는 은행과 서류가 없는 사무 환경을 만들며, 기존 영업점은 손님과 직접 만나는 거래에 초점을 둔다면, 스마트 브랜치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셀프 서비스이다.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지점 간의 거리를 줄이고,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은행은 고객의 상품가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고객은 안정된 은행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 이슈를 해결하고 신뢰성 있는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디봅스(Devops) : 조직 내에서 상호의존적인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병행하고 협업하는 방식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임원 직책 중의 하나로 최고 기술 책임자이다. 기업 내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관리,활용하기 위한 모든 경영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기술 부분을 대표하는 최고 임원으로 대내외적인 기술연구 및 개발을 책임지는 전사적 차원의 경영자이다.

모나체인(Monachain) : ㈜엘지씨엔에스(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금융, 공공, 통신, 제조 등 다양한 상업영역에 적용 가능하다. 국제 표준인 분산신원확인(DID) 기술이 적용돼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쉽다. LG CNS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50명으로 블록체인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향후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리눅스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 하이퍼레저(Hyperledger)에 참여할 예정이다.

<SOAP vs REST 웹서비스 비교>

공통점 : 플랫폼과 프로그래밍에 독립적

차이점 :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서비스 기반의 구조이다. XML을 이용해서 분산처리 환경에서 정보교환을 쉽게할 수 있게 한다. XML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아 이종간의 통신이 가능. HTTP, HTTPs, SMTP 등을 통해 메시지 교환 가능. 기업용에 적합하고 개발하기 어렵고 무거운 특징이 있다. 사람보다 기계가 해석하기 용이한 웹서비스 구조.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리소스 기반의 구조이다. SOAP보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개발하기에 용이하다. HTTP 프로토콜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부수적인 레이어나 세션관리를 추가하지 않고도 전달이 가능하다. 기계보다 개발자 입장에서 편한 구조. 엄격화된 SOAP와 달리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구조가 단순하여 확장성이 용이하다.

SDN(Software Defined Network, 소프트웨어의망) :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 TV, Big Data, 사물지능통신 등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인프라의 동작이 서비스와 환경에 따라 동적으로 제어 될수 있는 유연한 구조(Flexible Acchitecture)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 경로설정과 제어및 복잡한 운용관리를 편리하게 처리할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이다.

루트킷: 시스템 침입 후 침입 사실을 숨긴 채 차후의 침입을 위한 백도어, 트로이목마 설치, 원격 접근, 내부 사용 흔적 삭제, 관리자 권한 획득 등 주로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모음

백도어: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나 암호 체계에 접근하는 방법

-주로 설계 및 개발 단계에 의도적으로 심어지지만, 보안 취약점에 의해 전송된 프로그램(트로이목마)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P2P(개인간 직거래) 금융대출형, 신생기업이나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분 획득을 하는 투자형, 금전적 보상과 상관없는 후원형, 기부형 등이 있음.

오프 프레미스(Off-premise) :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

온 프레미스 On-premise) : 기업의 서버를 클라우드 같은 원격 환경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 인프라 구축의 일반적인 방식임. 온프레미스 시스템의 장점은 기업의 비지니스 정보를 보안성 높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많은 비용 들어감.

채널간섭 : 채널이 우선적으로 가지는 주기억장치의 엑세스 사이클 중 채널이 사용하는 비율

초자동화 : 다수의 머신러닝, 패키징 된 소프트웨어, 자동화 툴을 결합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툴 뿐만 아니라 자동화 자체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Cross-origin resource sharing, CORS): 교차 출처 자원 공유는 웹 페이지 상의 제한된 리소스를 최초 자원이 서비스된 도메인 밖의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구조이다

White box test : 모듈의 원시 코드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원시 코드의 논리적인 모든 경로를 검사하여 검사 사례를 설계하는 테스트 기법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쳐. 클라우드로 IT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업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버, 데스크톱 컴퓨터, 스토리지 같은 IT 하드웨어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려 쓰는 형태를 말한다.

증강 분석(Augmented Analytics) :

데이터 전처리부터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사람의 판단이 아닌 기계학습(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수행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분석 기술.

데이터 준비, 데이터 관리, 최신 분석,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마이닝 및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의 핵심 기능으로 발전 전망

버그 바운티(bug bounty): 보안취약점 신고제.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해킹해 취약점을 찾은 해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시행 중이다. 국내에선 삼성 네이버 카카오 네오위즈 한글과컴퓨터 등 5곳이 버그바운티를 실시하고 있다.

DAI(Digital access index) 디지털 접근 지수 : IT에 대한 접근성과 IT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계적인 비교 지수

IAM( Identity & Access Management, 계정 접근관리) : 기억이나 조직의 전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컴퓨팅 자원들을 접근할 때 일관성 있게 구성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원 접근을 제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통합 인증, 접근 권한 관리, 자동화된 계정 관리, 보안 로그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DID(Decentralized Identity) : 분산신원확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한 전자신분증 시스템이다.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듯 필요한 상황에만 블록체인 지갑에서 DID를 제출해 신원을 증명한다.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정보를 매개하는 중개자 없이 본인 스스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분산아이디 또는 탈중앙화 신원확인이라고도 한다.

:: 이니셜DID연합은 통신 3사(SK,KT,LG)가 주축이 돼 종이 증명서와 공인인증서를 보완하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을 개발하고 있다.

RSA 알고리즘 (RSA Algorithm): RSA 알고리즘은 비대칭형 공개키 암호화 체계의 알고리즘을 말하는데 1977년 이를 발명한 MIT대학의 교수 'Rivest', 'Shamir', 'Alderman'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RSA 알고리즘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 및 인증 알고리즘으로서 넷스케이프와 마이크로소프트 웹브라우저, 노츠 등의 제품에 채용되어 있다. RSA 알고리즘은 대형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숫자의 소인수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전제에 따라 결정되는 공개키 암호 체계를 따른다.

802.11ax 무선랜 표준 : 다양한 전파 환경에서 전송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중 사용자 미모(MU-MIMO) 기술과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 방식을 사용한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의 무선랜(WLAN) 표준.

IEEE 802.11ax는 다양한 전파 환경에서 전송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표준이다. 이 표준은 와이파이(Wi-Fi) 얼라이언스(Alliance)에서는 Wi-Fi 6라고 하며 2.4 GHz ISM 대역과 5 GHz U-NII 대역을 포함하여 1~7 GHz 대역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802.11ax는 접근점(AP: Access Point)이 밀집된 환경에서 전송효율을 802.11ac보다 4배 이상 높여 전송 용량을 증대시킨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10c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 받는 통신기술. 무선태그(RFID)기술중의 하나로 13.56MHz 의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이다. 통신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주목받는 차세대 근거리통신기술이다. 블루투스 등 기존의 근거리 통신 기술과 비슷하지만 블루투스처럼 기기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로스 해킹(Growth Hacking) : 특정서비스에 대해 고객생애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고려하는 체크리스트 및 지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단계에 맞춰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 서비스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표, AARRR의 평가지표가 존재  
-A(Acquisition), A(Activation), R(Retention), R(Revenue), R(Referral)

마이크로 모멘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수집을 하는 행동

HCE(Host Card Emulation) : 클라우드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인 킷캣과 블랙베리10에서 지원한다.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이 아닌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스마트폰에 깔린 모바일 앱이 결제 때마다 접속해 정보를 가져온 후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결제한다. 스마트폰에는 어떤 카드 정보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 HCE 기술을 활용하면 은행과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가 어떤 통신사를 쓰든지 상관없이 안드로이드 앱에 모바일 결제 기능을 넣을 수 있다.

디지털 메시(Digital Mesh) : 다양한 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촘촘한 그물망 같은 형태를 가리키는 것. 컴퓨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착용 컴퓨터, 가상 현실 기기, 사물인터넷센서 등 여러 스마트 기기들이 포함되며, 정보수집, 사람들과의 소통, 비즈니스에 사용됨.

FireWall : 기업이나 조직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로의 정보 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프롭테크(Prop Tech)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프롭테크 비즈니스 영역은 크게 중개 및 임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 조달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성의 민주화 : 추가적인 값비싼 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극히 단순화된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머신러닝, 앱 개발 등의 기술 전문 지식이나 판매 프로세스, 경제 분석 등 사업 분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

해밍 코드 : 오류를 스스로 검출하여 교정이 가능한 코드로 1bit의 오류만 교정할 수 있다. 해밍 코드 중 2의 지수승 번째 비트는 오류 검출을 위한 패리티 비트이다.

QKD(Quantum key Distribution): 암호 알고리즘을 통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두 시스템

사이에서 비밀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양자 키 분배의 중요하고 고유한 특성은 두 통신하는 사용자가 키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제 3자의 존재를 감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양자 중첩,얽힘을 사용하고 양자상태에서 정보를 전송하면서, 도청을 검출하는 통신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TETRA : 유럽 무선통신표준기구(ETSI)가 정한 디지털 주파수 공용통신(TRS : Trunked Radio System) 기술. 일명 유럽형 디지털 TRS로 지칭되며, 테트라는 개방형 기술로 기술 표중화 그룹인 TETRA MoU의 주요 멤버들이 기술규격 등을 제정, 관련 장비들을 선보인다.

시멘틱 웹(semantic web) :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웹.

현재의 컴퓨터처럼 사람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웹이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웹을 말한다

NSA: 네트워크 가상화의 원리를 적용, LTE망과 5G망을 단일한 네트워크처럼 활용하는 기술

Ethereum(이더리움)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이더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는 ETH로 표시한다. 이더리움은 디앱(DApp)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킬 스위치(Kill Switch) :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원격으로 잃어버린 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기능.

2014년 이후 의무 탑재되며, 임의(가령, 분실 폰을 습득한 사람)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만약 주인이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원격제어를 통해 정상화할 수 있다.

네온(NEON) : 네온은 삼성전자의 미국 연구개발(R&D) 조직인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산하연구소 스타랩(STAR Labs)에서 개발한 '인공인간(Artificial Human)'으로, 실제 현실에서 마주할 수는 없지만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데이터 직렬화 : 데이터 스토리지 문맥에서 데이터 구조나 오브젝트 상태를 동일하거나 다른 컴퓨터 환경에 저장하고 나중에 재구성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

디시리얼라이제이션 : 일련의 바이트로부터 데이터 구조를 추출하는 일, 역직렬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콘텐츠 병목현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큐비트 : 물질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 정보의 단위(unit). 일반 컴퓨터가 정보를 1과 0의 값을 갖는 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과 달리 양자 컴퓨터는 1과 0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qubit) 단위를 쓴다.

SOR(Smart Order Routing) : 주문을 처리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다양한 거래 장소에서 최상의 기회를 얻는 것을 목표. SOR(Smart Order Routing)은 유동성 조각화를 해결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합니다. Smart Order Routing은 정의 된 규칙, 구성 및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장소의 상태를 분석하고 주문 가능한 최상의 방법을 배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인 Smart Order Routers에 의해 수행됩니다.

Software Escrow : 개발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에 SW의 소스 프로그램및 기술 정보를 보관하는 것.

CC(Common Criteria): 현존하는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평가 기준의 조화와 표준을 제시하고 각 나라의 평가 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한 표준이다. 단일화된 공통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결과 및 시간의 절약, 평가 비용의 절감에 따른 제품가격의 인하, 신속한 평가에 따른 새로운 제품 개발의 가속화 등을 이룰 수 있다.

routing: 라우팅(routing)은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우팅은 전화 통신망, 전자 정보 통신망(인터넷 같은) 그리고 교통망 등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인간 증강 : 기술이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어떻게 인간의 인식과 신체에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함. 물리적 증강은 인간의 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기술 요소를 심어 타고난 신체적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을 향상시킴. 인식 증강은 전통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스마트 공간 내 새로운 다중 경험 인터페이스상의 정보를 평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이뤄짐.

IX(Internet Exchange) : 국내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인터넷 데이터들이, 해외 회선을 거쳐서 전송되지 않고 빠르게 전송, 수신 될 수 있도록, 한국전산원이 국내 최초로 서비스 한 네트워크간 연동 서비스 시스템이다.

CASE :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및 디버깅 과정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화 하는 것.

* 개발 기간 단축, 품질향상, 유지보수 용이, 재사용성 향상, 개발 주기의 표준화에 기여

퍼징(Fuzzing) :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의 보안 문제/취약점을 찾는 방법의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에러나 충돌을 만들기 위해, 임의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에러를 찾아내는 테스팅 기법.

제로트러스트 : 네트워크 자산에 연결하려는 모든 사람과 디바이스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접속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즉, 네트워크 자산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근거로 네트워크 위치보다는 장치의 사용과 사용자 인증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네트워크 경계가 모호해진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도래하면서 모든 네트워크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보안 방식이 필요해진 현재 컴퓨팅 환경에 부합.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업무 연속성 계획: 기업이 재해로 타격을 입은 뒤 업무 운명을 어떻게 복구 재개하는지에 대한 계획

스키마 마크업(Schema Markup) : 기존 검색결과에서는 불투명한 웹사이트 정보와 데이터들을 의미화 된 형태로 분류하는 리치 스니핏(rich snippet) 을 생성한다

PGP(Pretty Good Privacy) :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메일 보안 시스템 중 하나.

프라이버시 향상 이메일(PEM)에 비해 보안성은 떨어지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 PEM : 인터넷의 표준화 조직인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트 포스(IETF)에서 표준으로 정한 이메일 보안 시스템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다른 프로그램 안에 숨어 있다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자신을 활성화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달리 자기 복사능력이 없지만 실행되는 순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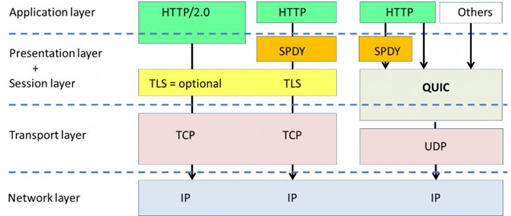
DApp(디앱) :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로 이더리움, 큐텀, 이오스 같은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간략히 분산앱 이라고도 한다.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디앱의 암호화폐는 코인이라 하지 않고 토큰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도그푸딩(Dogfooding) : 자사의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부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미국 IT업계 용어로, 자신이 만든 개밥을 먹으라는 말에서 유래함.

도그푸딩을 주료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구글이 있고, 구글 직원들은 회사 내부에서 모두 구글 제품을 사용하며, 신제품을 개발할 때 시장 출시 전에 사내 도그푸딩을 통해 평가를 받아 신기술 개발, 소비자 평가, 시장 선점 등에 반영한다.

구글 글래스의 정식 출시 전 구글 글래스는 쓰고 지하철을 활보하거나 TV, 내부 행사, 외부 강연등에 나타나며 이목을 끈 것 역시 도그 푸딩의 대표적인 사례

HTTP3.0(HyperText Transfer Protocol): 기존의 HTTP2.0과 달리 QUIC(Quick UDP Internet Connection)을 기반으로 가벼운 성능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암호화된 전송을 통해 멀티플렉싱된 스트림을 제공하는 새로운 HTTP의 표준을 의미



QUIC(Quick UDP Internet Connection): 구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크롬 등에 적용됨. UDP의 경우 Latency가 적어 속도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었지만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QUIC 프로토콜로 이를 보완해 UDP도 TCP처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FIX(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 FIX(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프로토콜은 주식, 선물옵션,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거래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다. 금융상품 거래의 참여자들로써 주문을 내는 고객 client, 중계를 해주는 증권사 broker, 체결을 시키는 거래소 exchange가 있는데 참여자들간의 통신을 표준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이동 장비 관리): OTA(Over The Air, 휴대폰 무선전송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기기 Power On상태로 있으면 원격에서 모바일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업데이트를 위해 A/S 센터를 방문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PC와 휴대폰 등을 연결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이 어디서든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 가능. 최근 보안 위협에 대한 강화대책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모바일 보안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데이터 테크 : 같은 통신사 가입자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통신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로, 데이터와 재테크의 합성어다. 줄여서 ‘데테크’라고도 한다. 통신사가 제공한 새 요금제와 서비스를 가족과 연인끼리 최대한 활용해, 약정을 깨지 않으면서도 저렴한 요금제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 나눠쓰기, 데이터 쉐어링이라고도 한다.

화이트박스 : 암호공격자가 암호화 키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

알고리즘을 큰 룩업 테이블로 만들고 그 안에 암호 키를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암호 알고리즘과 뒤섞인 상태로 숨겨둠으로써 내부의 동작을 분석하더라도 암호 키를 쉽게 유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

V2X(Vehicle to Everything) : 차량사물통신 / 차량이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 모바일 기기, 도로 등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 또는 그 기술을 말한다. 미래 자동차를 이끄는 기반이 되는 통신 기술이다.

폭포수 모형(Waterfall model)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앞 단계가 끝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선형 순차적 모형

투명성 및 추적성 :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개인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요구함. 기업들은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명성과 추적성은 이러한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공개형 클라우드와 폐쇄형 클라우드: 공개형 클라우드(Public Cloud)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모델이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2. 폐쇄형 클라우드(Private Cloud) 공개형이 아닌 특정 기업에게 제공하는 모델이다. 제공받는 기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튜링 테스트 : 기계(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실험으로, 1950년 영국의 앨런 튜링이 제안하였다. 현재 통용되는 테스트는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질의자가 인간과 컴퓨터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화를 통하여 인간과 컴퓨터를 구별해내지 못하거나 컴퓨터를 인간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해당 기계는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 : 다른 국을 향하는 모든 호출이 중계에 의하지 않고, 직통 회선으로 직접 접속되는 그물형 통신망. 통신량이 많은 소수의 국 간에서 구성될 때는 간편하나, 회선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경우도 존재.

스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때 고속의 보조 기억장치를 버퍼기억장치로 사용함으로써 저속의 주변 장치의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프로그램의 처리를 계속하는 기술

독스웨어(doxware) :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파일이나 정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대상자의 컴퓨터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기록, 사진,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공격자의 시스템에 옮겨 공개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옴니프레즌스(omnipresence) : omni + presence 합성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쇼핑이 가능한것,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

캐나다에서는 벽면에 상품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에 상품의 QR코드가 함께 나와있어 손쉽게 상품 조회 및 주문 가능

올조인(AllJoyn) :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연합체인 올신 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에서 특정한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효율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제시한 오픈 소스 기반 플랫.

올조인기기들끼리는 직접 통신(P2P : Peer - to - Peer)이 가능하다.

논리폭탄(Logic Bomb): 해커나 크래커가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를 조작해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위에 숨어 있다가 특정 시간이나 조건이 맞는 경우 실행(Trigger)되는 악성코드

이오스: 위임지분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제 3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 화폐단위는 EOS이다.

DES : 데이터 암호화 표준으로, 대표적인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다. 56비트의 암호/복호 키를 이용하여 64비트의 평문을 암호화, 복호화하는 방식이며 IBM사에서 개발하였고, 미국 국방성에 의해 채택되었다.

소프트포크: 기존의 블록체인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는 포크를 말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부분적인 개선만 이루어진다. 기존체인을 업데이트한 후 다시 체인에 덧붙이는 방식이다.

크리덴셜 스터핑 : 사용자 계정을 탈취해 공격하는 유형 중 하나로, 다른 곳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로그인 정보를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이 이뤄지면 타인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수법

SDLC(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 소프트웨어의 타당성 조사로부터 개발, 유지보수,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델화 한것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 프라이빗 뱅커(PB) 대신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이다.

UNIX : 교육 및 연구 기관에서 즐겨 사용되는 범용 다중 사용자 방식의 시분할 운영 체제. 대화식 시스템, C언어로 작성, 트리구조의 다중 사용자(Multi-User)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개의 작업을 병행 처리(Multi-Tasking)함.

공통모듈: 어플리케이션 개발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공유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는 함수나 프로시저를 하나의 모듈로 관리하여 사용의 편의성과 관리의 통일성을 얻겠다는 개념이다.

로그 아카이빙 : 전자 거래 시 거래 내역 데이터 인 로그 데이터만을 분류해 보관하는 시스템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

복수의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통합하고, 변형 및 적재하는 솔루션.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웹 환경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것이 특징.

BaaS(Blockchain as a service): 서비스형 블록체인 서비스.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을 인하우스에서 큰 비용과 개발 위험을 지고 테스트하는 대신 클라우드로 시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 여러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한곳에 집중해

데이터 범람으로 시스템 다운, 해커가 시스템을 압도하고 운영 능력을 붕괴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또는 서버에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할 때 발생

스텔스 (Stealth) 통장 :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금융 거래 및 거래내역 조회를 제한하도록 해 존재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계좌. 오픈뱅킹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코드커터족(Cordcutters) : 기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고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군

노모포비아(Nomophobia) :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없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 No mobile-phone phonia의 줄임말

트론(TRON) : 콘텐츠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운영 체제, 중국의 저스틴 선이 개발, 화폐 단위는 TRX

데이터옵스(Data Ops): AI와 ML을 기반으로 하는 애자일 방식의 데이터 관리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2020년에 전망하고 있다. 협력적이며 기능교차 방식을 데이터 분석에 접근하는 것을 데이터 옵스라고 부른다. 데이터 분석과 현장 워크플로우의 결합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범용 모델링 언어. 소프트웨어 집약 시스템의 시각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안 표기법을 포함.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며, 차별없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가 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우선 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콘텐츠 산업 성장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도모한다.

라이파이(Li-Fi) : 전구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획기적인 통신 기술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

메타 데이터 :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읽혀지고 수정되기 전에 참조되는 파일

스플린터넷 : 스플린터(splinter)와 인터넷의 합성어로 인터넷 속 세상이 쪼개지는 현상을 의미로, 인터넷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이버 네트워크지만 사실상 국가 또는 지정학적 단위의 네트워크로 분화되고 있다는 게 스플린터넷이다.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업내 각종 어플리케이션간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통합하는 방법론이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들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해 미들웨어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올랩) : 사용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법.

블레이드 서버(Blade Server) : 웹 페이지 서핑, 파일 공유, 데이터 암호화와 같은 특정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서버.

브레인 시티: 대학이 과학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도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는 대학 중심의 도시를 말한다. 필란드 오룰루시를 모델로 성균관대학교가 2013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에 4조8천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다.

오버더톱 서비스 (OTT:Over the top) :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미국의 넷플릭스, 국내 왓챠플레이

AI-주도개발(AI-Driven development) :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데이터 분석가와 협업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개발자들이 서비스형 사전 정의 모델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로 변화중, 서비스형 사전 정의 모델은 개발자에게 AI알고리즘 및 모델 생태계, AI역량을 솔루션에 통합하도록 설계된 개발 툴을 제공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 공급망 공격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해킹해 악성코드를 심고 사용자 PC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시 악성코드에 자동으로 감염되도록 하는 공격이다. 공급망 공격은 표적기관의 보안 시스템이 탐지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높다.

아마존 레코그니션(Amazon Rekognition) : 사진 및 동영상을 레코그니션 API에 기반해 객체, 사람, 텍스트, 장면 및 동작을 식별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이미지와 비디오에서 얼굴 분석 및 얼굴 인식 기능을 지원한다.

오픈뱅킹 : 은행 앱 하나로 본인 소유 다른 은행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는 공동 인프라이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 통신망): 가상 사설 네트워크로서 인터넷 등 통신 사업자의 공중 네트워크를 사용자가 마치 자신의 전용 회선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MODEM(모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과정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복조과정을 수행하는 신호변환장치

뉴로-심볼릭(Neuro-Symbolic): AI시스템이 학습과 논리를 겸하는 기술을 의미, 자연어처리 기술 분야 발전에 중요한 지표로, 컴퓨터가 상식을 추론하고 특정 전문 지식을 활용해 인간의 언어와 대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화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에 투입가능해지고,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AI 학습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MCI(Multi-Channel Interface) : 다양한 채널(단말기, 자동화기기, 콜센터, 모바일 등)을 통합하는 기술기반을 구축하여 업무시스템의 채널 의존성을 제거하고, 모든 채널이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통합 시스템이다.

제로 에포트 상거래(ZEC) : ‘이베이’의 미래형 쇼핑 서비스 개발그룹에서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이베이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사물인터넷(IoT)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쇼핑 서비스의 개발에 한창이다. 스마트폰으로 마음에 드는 진열대 제품을 촬영하면 휴대폰이 이베이 사용자 계정에 구매 목록으로 띄우는 식이다. 스크린상의 제품 카테고리 이미지를 사용자가 터치하면 수백 개 제품 목록이 뜨며, 정보를 얻는 ‘커넥티드 글라스’도 개발 중이다.

공공와이파이 2.0 : 공공와이파이를 전국민이 이용하는 공공편의 시설로 확대하려는 정부 추진 계획안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 의사 결정 지원을 지원하는 주체적, 통합적, 시간적 데이터의 집합체

다크 패턴 :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불균형을 말하며, 빈부간에 디지털화가 차이가 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터넷 지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격차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식, 인터넷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데브옵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문화 철학,방식 및 도구의 조합

자율 컴퓨팅(Autonomic Computing) :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스스로 규제, 치유하는 시스템. 복잡한 정보환경과 그 관리비용의 문제, 전문인력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함.

개방형 연계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 웹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되는 연계 데이터, 연계데이터와 오픈 데이터가 결합된 단어로 웹에 개시되는 데이터에 식별자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연계 데이터를 저작권 없이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정트리 (Decision Tree) :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이터집합의 그래프적인 표현. 주요 장점은 데이터 시각화이며 노드,가지,리프 등으로 구성된다.

제우스(Zeus) : 사용자의 온라인 뱅킹 로그인 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설계된 범죄용 소프트웨어 도구로서 인터넷 뱅킹용 악성코드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봇넷을 생성.

금융거래 증명서를 훔치며 자동결제시스템과 급여 시스템에서 인가받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행정전자서명인증서)

NPKI(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인증체계(공인인증서)

작업증명 알고리즘( PoW, Proof-of-Work):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트랜잭션이 유효한 트랜잭션인지에 대한 증명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에서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 지능형 지속 위협, 특정기업이나 조직 네트워크 대상으로 보안을 위협, 무력화하여 정보를 수집한 다음 빼오거나 파괴하는 공격수법

FDS(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 금융 거래를 함에 있어 이용자의 금융 거래 정보와 패턴을 수집,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판별하는 것.

온톨로지 : 존재하는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및 여러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 어떤 일정 범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개념, 특성, 연관 관계 등을 표현하여 단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단어 간 관계 정의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 속성-값 혹은 키-값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 방식의 개방형 표준 포맷. 자바스크리브 언어로부터 파생되어 자바스크립트의 구문 형식을 따르지만 언어 독립형 데이터 포맷 POST방식으로 서버와 통신을 할 때 요청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전달하고 응답도 JSON 형태로 전달 받는다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 기계 학습에서의 분류, 회귀 분석 등에 사용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의 일종으로, 훈련 과정에서 구성한 다수의 결정 트리로부터 부류(분류) 또는 평균 예측치(회귀 분석)를 출력함으로써 동작한다.

크롤링(crawling) :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 어느 부류의 기술을 얼마나 빨리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냐 하는 것이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최근 웹 검색의 중요성에 따라 발전되고 있다.

디지털 플라이휠 : 디지털 서비스에서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생태계 내에 머물게 하면 결국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는 논리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5G의 핵심기술 중 하나,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각각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

스위프트(swift): 은행 간 자금 결제와 메시지 교환 업무를 신속,저렴,안전 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적인 은행간 금융 정보 통신망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 조직이나 개체, 인터넷이나 기업 내 인트라넷 등 네트워크 상의 파일이나 장치 같은 자원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SW protocol

엑티브엑스 (Active X) : 윈도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커버로스 : "티켓"(ticket)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인증 암호화 프로토콜로서 비보안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노드가 보안 방식으로 다른 노드에 대해 양방향 식별할 수 있게 허용한다. 커베로스 프로토콜의 메시지는 도청과 재전송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커베로스는 대칭 키 암호로 빌드되며 TTP(신뢰된 서드 파티)를 요구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1) 디지털로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거나 전송된 여러 양상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문화적 관습

2) 네트워크 사회에서 참여자들이 의미와 아이덴티티를 협상하는 스킬, 태도, 기질

3)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문법, 작문, 글쓰기,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팟캐스팅, 리믹싱, 디자인을 포함

이모텟(Emotet) : 피싱 메일을 통해 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행위로 악성코드가 대량으로 담겨져있다. 주로 업무 지원요청, 청구서, 견적서 등 다양한 형태의 피싱 메일로 유표되며 자가 복제, 사용자 정보탈취, 다운로드 등 다양한 악성행위를 수행한다.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 장비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범용 서버의 가상화 기반 위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하는 기술. 기존 고정 인프라와 모바일 인프라 모두에서 Data/Control Plane 기능 적용 가능. Virtual Appliance는 추가적인 자원 할당으로 유연성/확장성이 높음.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임대해 주는 서비스

유니캐스트: 각 발신자가 하나의 수신자와 통신하는 지점 간(point-to-point)방법, 고유 주소로 식별된 하나의 네트워크 목적지에 1:1로 트래픽 또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

파이로트 : 이미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소규모로 진행해보는 시험프로젝트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 소스코드(재사용에 가장 많이 이용), 소프트웨어 크기가 작을수록 재사용률 높음. 개발 시간과 비용 단축, 품질 및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실패 위험 감소,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한 지식 공유. (component : 객체들의 모임, 대규모 재사용 단위로 쓰임)

다크웹(Dark web) : 다크 웹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된다. 다크 웹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3년, 미국 FBI가 온라인 마약 거래 웹사이트 ‘실크로드’를 적발해 폐쇄하면서 알려졌다.

ISO/IEC 27701 : ISO/IEC 27701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SO/IEC 27001 및 \*ISO/IEC 27002의 확장판으로, 조직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

포직스 (Posix,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for Computer Environment)

: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표준 운영체제 인터페이스로 IEEE산하 P1003 기술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 규격. ANSI표준으로 제정함.

DMA(Direct Market Access) : 증권사 서버를 거치지 않고 고객 매매시스템을 바로 최소주문경로(최소속도)로 거래소 시스템에 연결하여 주문하는 방법,

이를 위해 algorithmic trading이 필요, algorithmic trading: 하나 혹은 여러개의 지표에서 신호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상태로 주문을 실행하는 트레이딩 기법

바이오페이(Biopay) : 생체정보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손바닥 정맥, 홍채, 목소리 등 생체정보로 금융 정보를 인식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크로스셀링]=교차판매: 금융기관들의 대형화ㆍ겸업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생명 및 손해 보험사ㆍ은행ㆍ증권사 등 금융업계 간 영업권의 경계를 없앤 적극적 판매방식

다크 넛지(Dark Nudge):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 처음에 광고한 것과 다르게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특별한 고지 없이 자동으로 과금하는 상술을 말한다.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휴대전화 사용자 개인정보 저장 모듈

멀웨어(Malware) : 악성 소프트웨어의 줄임말.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엑세스한 내용을 추적하여 피해를 일으킨다. 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키로거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뉜다.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 최적화): 검색엔진 최적화. 네이버, 구글, 다음 등과 같은 검색엔진은 사용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선별.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가 검색엔진에서 잘 검색되게 하는 것을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한다.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크롤러(crawler):조직적, 자동화 된 방법으로 www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크롤러가 하는 작업을 크롤링 혹은 스파이더링이라 부른다. 쉽게 표현하면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크롤러는 스파이더 혹은 bot이라고도 부릅니다

COBIT 프레임워크(Control Objective For Information related Technology): 가장 권위 있는 IT 거버넌스 통제 프레임워크이다. COBIT은 IT프로세스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실무적 관리도구에 가깝다. IT 거버넌스를 돕는 것으로 어느 기관 또는 단체가 IT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는 도구들의 모듬으로 볼 수 있다.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기존의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업무 능력 및 성숙도 평가 기준의 후속 모델

STP : 시장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타깃을 설정(Targeting)해 목표시장에 적절하게 제품을 포지셔닝(Positioning) 하는 전략

테크래시(tech lash) : 정보기술(IT) 기업이 성장하면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IT 기업에 대한 반발심이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기술(tech)’과 ‘역풍(backlash)’을 합성해 테크래시라고 부른다.

인터럽트(Interrupt) : 마이크로프로세서(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때, 입출력 하드웨어 등의 장치나 또는 예외상황이 발생하여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마이크로프로세서에게 알려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후 실행 중이던 작업으로 복귀.

빈 어택(BIN ATTACK): 빈(BIN·Bank Identification Number)은 은행이나 카드사 고유번호로, 일반적으로 카드 일련번호 16자리 중 앞 여섯 자리가 BIN이다. 빈 어택은 특정 카드의 BIN이 같다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을 해킹해 무단으로 결제하거나 고객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말한다.

언택트(untact) : un+contact. 기계로 메뉴를 주문하는 키오스크나 VR(가상현실) 쇼핑, 챗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판매 직원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Synonym: 해싱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Rosseta Net : 전자 부품(NC), 정보기술(IT), 반도체 제조(SM) 분야에 종사하는 전 세계 350개 이상 일류기업체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보안응용모듈 : 카드 판독기 내부에 장착되어 카드와 단말기의 유효성을 인증하고 통신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정보의 노출방지 및 통신 메시지의 인증과 검증을 하며, 카드에서 이전된 전자적인 가치를 저장하는 것

리걸테크(legal-tech): 법과 기술의 합성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뜻함(필요한 법률 정보검색, 맞춤형 변호사 검색, 전자증거재시, 법률자문및 전략수립)

위협사냥: 자동화된 방어 및 탐지(preventative & detective) 솔루션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시스템에 숨겨진 고도화된 위협을 발견하기 위한 중심의 프로세스

디지로그(Digilog) : 첨단의 디지털 기술과 부드러운 아날로그적 정서가 결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거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번혁기에 위치한 세대를 가르키며, 디지털의 장점을 내포하면서도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구성된 제품을 이르는 말이기도 한다.

알렉사(Alexa) : 아마존의 인공지능. 아마존 에코, 아마존 탭 등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비서.

.

ABM(Activity Based Management) : 활동 중심 관리, 활동에 근거를 두고 좀 더 정확한 원가대상에 대한 성과를 측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빛을 활용해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감지하는 기술로, 주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있어 각광받는 기술이다. 핵심 원리는 판단, 인지, 제어이다. 이 중 핵심은 인지인데, 주변 상황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3D지도 복원 기술과 연계되어 다양한 시도가 병행된다.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 :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자망. 기존의 구리 전화선을 통해 일반 음성통화는 물론 데이터 통신을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디지털 가입자 회선 서비스(xDSL) 가운데 하나이다.

HFT(High Frequency Trading) :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내는 주문을 수천번 반복하는 거래로서 알고리즘 매매방식 중 하나. 미리 정해 놓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성능 컴퓨터에 의해 빠른 속도로 주문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피클(Pickle): 임의의 파이썬 객체를 저장하는 일반화된 표준 라이브러리.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객체 뿐만 아니라 사용자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까지 저장하며 파이썬에서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 직렬화 및 역직렬화를 해주는 모듈

캐시 메모리(Cash Memory) : 일종의 버퍼 메모리로, CPU의 속도와 메모리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 실행 속도를 중앙처리장치의 속도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memory access시간을 단축. 캐시는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보조기억장치(가상 메모리)는 쓰이지 않는 부분을 저장

셋톱박스(Set Top Box) :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TV 위에 설치된 상자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디지털 셋톱 박스는 디지털 TV방송을 아날로그 TV로도 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쌍방향 TV나 주문형 영상물(VOD : video on demand)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 외장형과 내장형이 있다.

텔레매틱스(Telematics) : 이동통신망, 위치 기반 서비스(LBS),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을 자동차에 접목하여 운전 경로 안내, 차 사고나 도난 감지, 교통 및 각종 생활 편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퀀트: 수학, 컴퓨터, 통계, 물리학 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을 총칭

VPA(Virtual Personal Assistant): 개인비서처럼 사용자가 요구하는 작업을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개인가상비서)

스마트SOC (Smart SOC) :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그 결과를 상호연결해 실시간으로 예측해 대응하는 인프라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 뉴스와 블로그와 같이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 업데이트된 정보를 쉽게 사용자에게 제공하기위해 XML기반의 형식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 없이 생활을 힘들어 하는 세대

립스틱 디지털 : 정부의 금융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혁신 사업을 내놓았지만 무늬만 혁신이라는 뜻으로 소비자와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

키로깅(Keylogging) : 사용자가 키보드로 PC에 입력하는 내용을 몰래 가로채어 기록하는 행위. PIN패드나 스크린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키로거(Keylogger)의 대상이 된다.

::2011년 농협 전산망 자료가 대규모 손상되어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는데, 이는 키로깅을 활용한 수법이었다.

LBSNS(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 :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공 서비스

서비스형 저장 장치(STaaS)

데이터 저장 공간인 스토리지를 서비스처럼 사용하는 것. 데이터 프로비저닝, 데이터 이주, 백업, 재난 복구 등과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온라인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한 것

N스크린 :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OSMU와 각각의 디바이스에 적합하게 가공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ASMD로 나눌 수 있다. 애플은 아이튠스와 에어플레이(AirPlay)를 이용한 애플 기기 간 공유 서비스를, 삼성전자는 DLNA를 이용한 기기 간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랜잭션(transaction) :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작업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연산들. 트랜잭션은 commit되거나 Rollback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회복의 단위가 되며 회복 시 참조하는 지점인 구조점은 여러개 지정이 가능함.

객체 지향 언어 : 소프트웨어를 객체 지향 방식으로 설계한 후 객체 지향의 특성(클래스, 객체, 상속, 추상화 등)을 잘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Ruby, Python, C#, Objective-C, Java

데이터레이크 : 조직 내·외부 다양한 원천시스템으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취합하여 목적에 맞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빅데이터 저장소

* 저장 형태 : 원본형태 취합 데이터
* 대상 데이터 : 전사 데이터
* 이용자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이용형태 : 직접분석

양자암호통신: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를 이용한 통신으로, 빛 알갱이 입자인 광자를 이용한 통신을 말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보안 기술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CB (Credit Bureau) : 개인 신용 관련 정보를 토대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 더불어 직접 신용등급을 매기며 이 신용등급은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한다.

Docker : 리눅스 기반 컨테이너(다양한 프로그램, 실행환경을 컨테이너로 추상화하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배포 및 관리를 단순하게 해줌) 기술을 자동화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관리,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

Session: 웹 브라우저안에서 일정 시간동안에 서버가 해당 사용자를 식별하고 그에 따라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이때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이 정보를 의미

Co-location Service : 기업이나 사용자가 서버를 구매해서 서버 업체에 위탁, 관리를 의뢰함으로 상면비(서버자리비용), 회선비만을 지불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서비스

LPDDR5 DRAM(Low Power Double Data Rate DRAM)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높은 전력효율을 요구하는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메모리 반도체. 초고화소 카메라 기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기 적합한 DRAM

OTP(Onte Time Password) : 일회용 인증번호 생성기.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의 단말기. 보안카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

키젠: (keygen, "key generator"의 준말)은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CD 키나 일련/등록 번호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타 일부 등로 정보이다. 설치 과정이 없고, 크기도 조그맣게 제작된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크랙 그룹을 통해 다양한 웹사이트로부터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JS):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 웹 브라우저 내에서 주로 사용.

JS를 실행하는 크롤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Selenium이라는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야 함

ALM(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응용 프로그램 수명주기 관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품 수명주기 관리입니다. 요구 사항 관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테스트,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변경 관리, 지속적인 통합, 프로젝트 관리 및 릴리스 관리가 포함됩니다.

C2DM(Android Cloud to Device Messaging): Android 클라우드 대 장치 메시징 (C2DM)은 Google이 개발하고 Google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로 대체 된 기능이없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입니다. 개발자는 서버에서 Android 애플리케이션 및 Chrome 확장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있었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물 이용 허락 라이센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한다.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파장분할 다중. 파장이 서로 다른 복수의 광신호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광섬유를 다중 이용하는 방식. 빛의 파장 축과 파장이 다른 광선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FEP(Front-End-Processor) :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시세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신하는 서비스로 한국 거래소(KRX)에서 제공

캐싱 서비스 : 검색 작업이 [복잡한](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18449&ref=y) [데이터](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65153&ref=y)를 임시로 저장하여 [네트워크](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43904&ref=y) 응용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42806&ref=y)의 호출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52174&ref=y). 캐싱 서비스는 [콘텐츠](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57084&ref=y) 전송 네트워크(CDN)의 일종으로 캐싱 기술을 이용하여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감소시키고, [응답 시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35652&ref=y)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분산 [시스템](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53283&ref=y)에 응용된다.

스래드(thread) :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단위. 프로세스의 생성이나 문맥 교환 등의 오버헤드가 줄어 운영체제의 성능이 개선. 동일 프로세스 환경에서 서로 독립적인 다중 수행이 가능.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는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스레드를 운용함.

VM 모바일 뱅킹(Virtual Machine Mobile Banking) : 금융 칩을 내장하지 않은 휴대 전화로도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사회공학적 해킹 :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공격 기법

인간의 감정이나 인지적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비기술적인 방식

와이브로 (Wibro) : 2.3GHz 휴대인터넷(portable internet)의 명칭으로 휴대평 무선단말기를 이용해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 트레이딩(System Trading): 자신의 자의적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일정한 매매규칙을 사용해 일관성 있게 매매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매매방법으로 특정종목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등 다양한 매매조건을 프로그래밍화해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주어진 조건대로 매매를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데이터의 안전한 배포를 활성화하거나 불법배포를 방지하여 인터넷이나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의시스시스템.

데이터 암호화로 인증된 사용자만 접속하거나,

디지털워터마크 사용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작성해 제한없이 보급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보호함.

타이포스쿼팅 (Typosquatting):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철자를 빠뜨리는 실수를 이용하기 위해 유사한 유명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는 것

안드로이드 법칙 : 스마트폰 신제품의 주기가 4~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제품의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는 현상. ( 마이크로집의 성능이 매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에서 따온 말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품수명주기가 빠르게 짧아지는 것을 말함 )

UDP(user datagram protocol)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서로 주고 받는 형식이 아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 TCP와 반대되는 개념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직교 주파수 분할, 다수의 반송파로 다중 전송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XML 문서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의 할 때에 DTD (Document Type Definition)를 사용한다. XML에서는 자유롭게 태그를 정의하여 문서를 작성 할 수 있지만, 어떤 태그를 사용할지 XML 문서의 구조를 결정 해두면 유용하다. 동일한 규칙에 따라 XML 문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한다. 예, 지점마다 XML사용이 다를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미리 정해둔 DTD를 토대로 작성하면 표준화된 XML 사용이 가능해진다.

비콘(Beacon) :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근거리의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데이터로 교류하는 근거리 통신 기술.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가 10cm 내의 근거리에서만 작동하는 반면, 비콘은 최대 50m까지 작동 가능.

GIG 프로젝트 : 미국의 총체적 통신 보안 사업. 미국 국방부 중심으로 미군과 자국 정보기관이 해킹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은 안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상용화할 수 없고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다

교착상태 :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며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

* 교착상태 발생의 필요충분조건 :
  + 상호배제 : 한번에 한 프로세스만 자원사용
  + 점유와 대기 : 다른 자원이 할당되길 기다리면서 이미 확보한 자원을 계속 보유
  + 비선점 : 강제로 빼앗을 수 없음
  + 환형 대기 : 서로간의 요구관계가 회전

파싱 : 컴퓨터에서 컴파일러 또는 번역기가 원시 부호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각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또는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

IPX(망 간 패킷 교환, Internetwork Packet Exchange) :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모델의 제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에서 주소 지정, 경로 지정, 스위칭 등을 담당하는 것.

애드웨어: 무료로 사용되는 프리웨어(freeware)나 일정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셰어웨어(shareware) 등에서 광고 보는 것을 전제로 사용이 허용되는 프로그램.

머클 트리(merkle tree) : 블록체인에서 블록 하나에 포함된 모든 거래 정보를 요약하여 트리(tree)형태로 표현한 데이터 구조, 머클 트리의 최상위에 위치한 해시값을 머클 트리 루트라 하며, 자식 노드에서 부모트리로 상향하는 구조이다.

Alt-text : 웹에서 이미지와 링크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불편한을 초래하여 웹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문자 형태로 해당 이미지나 속성의 속성을 제공하는 것

스마트브랜치(Smart Branch) : 고객이 최첨단 IT기기를 활용하여 간단한 은행업무를 스스로 볼 수 있는 신개념 은행 영업점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여러 과정의 연산이 하나의 단위 프로세스로 실행되도록 하는 프로세스이다.

u-City : 최첨단의 IT 기반구조와 유비쿼터스 개념을 융합하여 형성한 도시 공간을 말한다.

체계적 도시 관리에 의한 시민 안전 보장, 시민 복지 서비스 향상, 생활 편의 증대, 삶의 질적 향상, 신산업 창출등에 걸쳐 도시의 기능을 혁신한 미래 정보화 도시이다.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 누구나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고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블록체인. 참여노드(컴퓨터)가 많고 트랜잭션이 공개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누구나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만큼 규모 있는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를 작동시킬 수 있다.

제네시스 블록: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시작을 상징하는 첫 번째 블록.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이후 다음 블록이 지속적으로 연결됨. 블록이 생성된 순서는 높이로 표현하며, 0번 블록은 네트워크가 최초에 시작될 때 만들어진 제네시스 블록이 됨.

SECaaS(Security as a Service): 최근 보안 업계에는 서비스로서의 보안(Security as a Service, SECaaS)이 대두됐다. SECaaS는 SaaS의 한 종류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 또는 ‘보안 클라우드’으로 불린다. SECaaS 서비스는 최신 보안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따라서 별도의 인프라 없이도 문제를 완화하고 균일하고 일관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SECaaS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외에 관리나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기존 보안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도 해소된다. 로그 관리나 경계 모니터링 같은 작업을 SECaaS로 맡겨 보안 업무를 간소화하고 핵심 역량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MDD(Model Driven Development) : 소프트웨어가 개발을 할 때 모델을 작성하면 모델로부터 프로그램 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개발 방식

Subscription Commerce : 구매자가 정기 구독료나 가입비를 서비스업체 지급하면 해당 업체가 상품을 알아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상거래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 : GAN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로,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하는 모델과 이에 대한 진위를 판별하는 모델의 경쟁을 통해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스래싱(Thrashing) :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여 프로세스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커지는 현상

알파고 제로(AlphaGo Zero) : 순수 독학만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인공지능(AI). 바둑 규칙 이외에 아무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신경망 기술을 활용, 스스로 대국하며 바둑 이치를 터득함 (기존 것은 사전 지식 ㅇ)

DIVA(Digital Interface for Video and Audio)

: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가전제품들 간에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적으로 일반 데이터를 보내는 고속 양방향 채널과 비디오와 오디오를 보내는 채널이 통합되어있다.

크로스 플레이: 플랫폼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게임을 즐기는 시스템. 모바일 기기에서 PC게임을 구동하거나 그 반대도 성립한다. 크로스 플레이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은 크로스 네트워크 플레이다. 데이터 연동을 통해 이종 플랫폼 간 대전 게임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 암호화페를 보유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에서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확률로 더 짧은 시간안에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브릿지: 두개의 근거리 통신망 (LAN) 을 서로 연결해주는 통신망 연결장치로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링크 계층에 속한다.

BSC (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표’로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4가지(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 지표를 도출해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서 단기적 성격의 재무적 목표 가치와 장기적 목표 가치들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

하이브리드 블록체인(hybrid blockchain):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징을 섞은 혼합형 블록체인.하이브리드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검증 가능성을 위해 거래 내역을 개방할 수 있다.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 : 목표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값들을 꾸준히 입력하면서 시스템의 반응상태를 추적하는 공격으로 시간 낭비가 많을 수 있다.

VXML(VoiceXML): VoiceXML은 사람과 컴퓨터 간의 대화식 미디어 및 음성 대화 상자를 지정하기위한 디지털 문서 표준이다. 뱅킹 시스템 및 자동화 된 고객 서비스 포털과 같은 오디오 및 음성 응답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Qos(Quality of Service) : 네트워크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연시간이나 데이터 손실률 등을 보증하기 위한 서비스 규격이다. 전송 우선순위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류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을 먼저 전송하게 된다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 인증서 폐기 목록) :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 목록, 폐기된 인증서

BRE(Business Rule Engine) : 기업의 복잡한 업무 규칙이나 변경이 많은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정형화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 최적화, 자산화 하기 위한 기술 및 솔루션

파일 디스크립터 : 파일이 엑세스되는 동안 운영체제가 관리 목적으로 알아야 할 파일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자료 구조. 파일 제어 블록이라고도 함. 시스템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파일시스템이 관리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참조할 수 없음.

엔알(New Radio) : 5G에서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접속(Radio Access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Private Blockchain: 사용 권한이 있는 제한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ex) 하이퍼레저(hyperledger), 이더리움(ethereum)

펨토셀(FemtoCell) : 기존의 휴대폰이 지원해주는 서비스 영역보다 훨씬 작은 영역을 지원해주는 이동통신 서비스. 아주 작은 규모의 휴대폰 기지국과 집안의 유선 인터넷을 연결함으로써 자유로운 유무선 통신을 지원한다. 중계기를 통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낮고, 통화 품질이 좋다. 펨토(Femto)와 셀(Cell)의 합성어로서 펨토는 1000조분의 일을 나타내며, 셀은 휴대폰 기지국 1개를 의미한다.

페이지랭크(PageRank) :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웹사이트 검색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검색된 웹사이트 중 다른 웹사이트의 링크를 많이 받는 웹사이트가 중요할 것이라는 개념하에 구글의 창립자가 개발한 알고리즘

리워드앱 : 스마트폰으로 광고를 시청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나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앱

R트리: 사각형 영역안에 객체가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는 최소사각형(MBR:Mininum Bounding Rectangle)에 기반한 인덱싱 기법

팝콘브레인: 첨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현상. 팝콘이 터지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우리 뇌가 반응을 보이는 현상

모블로그(Moblog) : 모바일과 블로그의 합성어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웹상의 블로그에 글이나 그림 등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가상 메모리(Virtual Memory) :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프로그램에 실제 메모리 주소가 아닌 가상의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멀티태스킹 운영체제에서 흔히 사용되며, 주기억장치(RAM)의 부족한 용량을 보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COM 후킹 (Component Object Model Hooking) :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책정한 통신 규약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탐색기 프로그램 등의 가장 하부에 위치, 응용 프로그램 간 자료 공유 등을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 COM(Component Object Model) 인터페이스를 후킹해 사용자가 입력한 계좌 정보 등을 변조 가능.

포렌식 워터마킹 : 상영되고 있는 영화의 비디오 카메라 녹화를 통한 콘텐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녹화된 콘텐츠의 분석을 통해 어느 스크린에서 촬영되었는지, 필요하다면 극장 내 어느 위치에서 촬영되었는지 등까지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유출의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오피스 오픈 XML(Office Open XML, OOXML, 오픈XML): [XML](https://ko.wikipedia.org/wiki/XML)을 기반으로 한 [파일 포맷](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_%ED%8F%AC%EB%A7%B7)이다. [마이크로소프트](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9D%B4%ED%81%AC%EB%A1%9C%EC%86%8C%ED%94%84%ED%8A%B8)가 추진하였으며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Ecma 인터내셔널](https://ko.wikipedia.org/wiki/Ecma_%EC%9D%B8%ED%84%B0%EB%82%B4%EC%85%94%EB%84%90)에 유럽 표준([ECMA-376](http://www.ecma-international.org/publications/standards/Ecma-376.htm))으로, 2008년에 [ISO](https://ko.wikipedia.org/wiki/ISO)/[IEC](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C%A0%84%EA%B8%B0_%ED%91%9C%EC%A4%80_%ED%9A%8C%EC%9D%98)에 국제 표준([ISO/IEC 29500](http://www.iso.org/iso/iso_catalogue/catalogue_tc/catalogue_detail.htm?csnumber=51463))으로 승인되었다. 이 문서 규격은 문서, [프레젠테이션](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A0%88%EC%A0%A0%ED%85%8C%EC%9D%B4%EC%85%98), [스프레드시트](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94%84%EB%A0%88%EB%93%9C%EC%8B%9C%ED%8A%B8)를 포함한다. 확장자는 .docx 또는 .docx(문서), .pptx(프레젠테이션), .xlsx(스프레드시트)로 통일되어 있다.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엠큐티티) : 송신자가 메시지를 매개자에게 발행한 후 수신자가 메시지를 구독하는 방식

프록시 서버(Proxy Server) : 시스템에 방화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만들어놓은 서버. 방화벽 안쪽에 있는 서버들의 외부 연결은 프록시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연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서버로부터 목록을 캐시하는 시스템이다.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 웹사이트 상에서 원하는 부분에 위치한 정보를 컴퓨터로 하여금 자동으로 추출하여 수집하는 기술

오케이구글 : 구글이 2016년에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다. 기존에 구글이 제공하던 카드형 서비스인 구글 나우와는 달리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OK Google'이나 'Hey Google' 이라고 불러서 호출.

크랙 : 복사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풀어서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 2월 세계적인 인터넷 사이트인 야후(Yahoo)가 해커들의 공격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치명적인 영향을 입을 수 도 있다.

인포러스트(Infolust) : 사람들에게 민감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빠르게 대중화시키는 사람. Information(정보)과 Lust(열광)의 합성어이다.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Rust programming language) : 안전성, 속도, 병행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질라에서 개발한 범용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C,C++,Go언어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며, 쓰레기 수집없이 안정적인 메모리 해제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병행 프로그래밍 제공과 멀티 코어 프로세싱을 지원할 수 있는 병렬 처리 프로그래밍 제공이 강점이다.

RF카드 : 주파수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의 카드로 카드를 리더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리더기가 카드에 담긴 정보를 읽어들이게 된다. 교통수단이나 보안시스템, 지불수단으로 쓰인다.

RAM(Random Access Memory): 주기억장치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보조기억장치로부터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이동시켜 실행시킬 수 있는 기억장소를 의미. 전원이 끊어져도 기억된 내용이 보존되는 ROM과 전원이 꺼지면 모든 내용이 지워지는 RAM으로 이루어져 있다.

SRAM은 전원이 공급되는 한 기억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으며, 복잡한 재생 클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량의 메모리나 캐시 메모리에 주로 사용된다.

DRAM은 전원이 차단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소멸되는 휘발성 기억소자로, 시간이 지나면 축적된 전하가 감소되어 전원이 차단되지 않더라도 저장된 자료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페이지 폴트(Page Fault) : 프로그램이 자신의 주소공간(가상메모리공간)에는 존재하지만 시스템의 RAM에는 현재 없는 데이터에 접근을 시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운영체제는 그 데이터를 메모리로 가져와서 마치 페이지 폴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동작하게 해준다.

퍼포먼스 마케팅 :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로 노출한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를 통해, 브랜드 웹사이트와 쇼핑몰 등에 유입된 고객들이 매출로 전환되는 과정을 체크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마케팅과정. 고객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이 핵심.

드롭퍼(Dropper) : 파일 자체 내에는 바이러스 자체가 없으나 실행 시 바이러스를 불러오는 실행파일. 드롭퍼(Dropper)는 실행 시에 바이러스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시스템을 감염시킨다.

P3P(개인정보보호정책,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Project): P3P는 사용자들이 허용하는 정보만 웹 사이트들이 수집할 수 있게 통제하는 도구이다. P3P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방문자 간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자동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P3P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웹 사이트의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전달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핑거(finger) :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는 유닉스의 기능. finger를 실행하면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상대 컴퓨터가 로그인 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네트워크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출력된다.

Geo-Fence(가상 울타리) :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한 자리 영역에 설치한 가상의 울타리

커널(Kernel) : UNIX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드웨어를 보호(캡슐화), 주기억장치에 상주,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관리 등을 수행.

스파이 앱(Spy App) : 사용자들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음성 녹음을 통한 도·감청 기능까지 갖춘 앱을 일컫는 말로, 스파이 애플리케이션의 준말이다. 스파이 앱은 주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제작되는데, 안드로이드는 개방형이라 아무 앱이나 규제 없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

HAI 데이터셋 :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기술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셋. 수작업에 의존한 기존 데이터셋의 데이터 라벨링 한계점을 극복하여 데이터 신뢰성 보장과 정밀한 성능평가가 특징이다.

개인용 푸드 컴퓨터(Personal Food Computer, PFC)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식물 재배에 필요한 각종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 자동 조절하는 데스크톱 컴퓨터 크기의 시스템

식물 성장환경을 관리하는 모니터, 로봇 제어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작물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환경 제어 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

Ad-hoc(애드혹) 네트워크: 무선 기반의 이동단말기 간의 연결 망의 일종으로서, 라우터 장비 가 따로 없고 이동단말기 중 일부가 라우터 역할을 담당하는 네트 워크이다. 동적으로 경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구조 없는 네트워킹이라고도 한다. 험난한 지형 위험한 장소에서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데 유용하다. 이동단말기에 센서 기능을 부가할 경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로 발전한다.

에듀테크 : 교육에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학습자의 교육효과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킬러앱(Killer App) :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결심하게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처음으로 등장한 특유한 어플리케이션, 다수의 폭발적인 관심을 끄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예를 들어, VisiCalc(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로터스 1-2-3, 앱 브라우저(1990년대)가 대표적인 킬러앱이다.

르네상스 칼라: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급변하는 시대에 민첩하게 변화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판을 말함. 은행, 엘리베이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향후 모션인식이나 NFC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쌍방향으로 통신하는 형식으로 점차 발전할 예정이다.

베스천 호스트(Bastion Host) : 침입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수행하는 호스트.

노매딕 컴퓨팅(Nomadic Computing): 1995 UCLA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로, 선과 연결의 제약을 없애고 네트워킹의 이동성을 극대화하여 특정장소가 아닌,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즉, 유목(Nomadic) 환경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디바이스에 정보기기가 탑재되어 무선인터넷과 [텔레매틱스](https://ko.wikipedia.org/wiki/%ED%85%94%EB%A0%88%EB%A7%A4%ED%8B%B1%EC%8A%A4)와 같은 컴퓨팅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관점에서 일관된 내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KT의 네스팟과 같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이동성을 강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TCP/IP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TCP/I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상의 각 호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여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

단순 서비스 검색 프로토콜(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 :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는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나 정보를 찾는 프로토콜. 프린터, 스캐너, IP카메라, 스마트TV 등 Iot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탐색 할 때 사용

ESL(Electronic Shelf Label, 전자식 매대표시기) :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진열대에 상품별로 상품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상품태그

스팀(steem) :스팀은 커뮤니티 생성과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구성원들의 개인 기여도를 투명하고 정확히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설계됐다. '스팀'과 '스팀달러', '스팀파워'란 3가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돌아간다

위험관리(Risk Analysis)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돌발상황(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

<404 error: File not found> :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할 수는 있지만 서버가 요청한 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HTTP 표준 응답 코드. = HTTP 404

TPS: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젝션의 개수를 뜻한다. 블록체인의 '속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 (동의어: 데이터 마스킹, 개인정보 가림) : 이미지나 영상등에서 다른 공개된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는 민감 데이터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암호화하거나 마스킹)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퀵돔(Quickdom) : xxxx.co.kr과 같은 3단계 형태의 도메인을 xxxx.kr과 같이 2단계로 축약한 것. 짧은 형태의 도메인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고 주소창에 입력하기도 간편하다. 영어의 ‘Quick’과 ‘Domain’이 결합된 합성어로서, 2단계 영문 도메인(kr)의 브랜드명을 말한다.

UDP(User Datagram Protocol) :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 아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

SEM(Search Engine Marketing):검색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웹사이트로의 방문을 유도하고, 상품의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마케팅 전략. 배너광고와 같은 각종 프로모션이나 최적화 작업(SEO)을 통해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블로그 등 웹사이트의 상위랭킹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통칭

포트스캐닝(Port Scanning) : 대상의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침입 전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작업. 스캐닝을 통해 대상 네트워크 보안장비 사용 현황, 우회 가능 네트워크 구조, 해당 네트워크 내의 시스템 플랫폼 형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알 수 있다.

스케일 아웃(Scale out) : 접속된 서버의 대수를 늘려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하던 일을 여러 장비에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다.

컨텐트 보안(Content Security) : 조직이 데이터 흐름을 통해 전자우편 또는 웹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컨텐트의 손실, 전자우편을 통한 기밀 정보 유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명예훼손이 확산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퓨샷러닝(Few-shot learnign) :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전에 수백 가지의 예를 사용해 교육을 받는다. 반면, 퓨샷러닝은 상당히 적은 양의 훈련으로도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가 새로운 개념이나 일을 배우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블 트윈스 : 실제로는 공인되지 않은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이면서도 공인된 무선 접속 장치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속한 사용자들의 신상 정보를 가로채는 인터넷 해킹 수법.

AP(Access Point): 무선 LAN 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비로서 유선 네트워크의 끝단에 장착된다.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 멀티 캐스트나 유니캐스트 통신서비스를 통해 비디오와 오디오스트림 또는 시뮬레이션 같은 실시간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종단간 전송을 제공해주는 UDP 기반의 프로토콜

서피스 허브(Surface Hub)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선보인 협업용 태블릿이다. 협업에 최적화돼 설계됐다. 2016년 1세대 서피스 허브가 2만1999달러에 출시됐다. 2세대인 서피스 허브 2(Surface Hub 2)는 1세대가 출시된 지 2년여 만인 2018년 5월 16일 공개됐다.

해시타임락 : 암호화폐의 결제 기술 중 하나로 계약을 일정시간까지로 제한한 타임락에 일정한 해시값이 제시돼야 계약이 성사되는 해시락이 결합된 형태.

딥페이크(Deep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인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뜻한다

그룹웨어 :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집단 작업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구성원 각자의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그룹웨어는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체 구성원 간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준다.

그레이웨어(greyware): 평범한 소프트웨어인지 바이러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트로이목마,랜섬웨어와 같은 악성프로그램과 다르게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며 치명적 위협을 주진 않지만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줌

웹 마이닝 :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존의 데이터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둡: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자바 프레임워크이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이 들지 않고 서버 비용만 들어 다른 시스템보다 저렴하다. 최근 데이터 가치 창출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

스케일 업(Scale up) : 서버의 자체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 기존의 서버에서 CPU, RAM 등을 추가하거나 더욱 고성능의 서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직 스케일이라고 부르기도 함.

무선 LAN(= Wi-Fi = Wireless LAN) : 무선 주파수 또는 빛을 이용하여 두 대 이상의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 배선이 필요 없고 단말기의 재배치가 용이하며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하고 빠른 시간 안에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선랜 기술은 IEEE 802.11표준에 기반하고 있다.

RFCOMM 규약(Radio Frequency COMMunication) : 논리적 링크 제어 및 적응 프로토콜(L2CAP) 상에서 RS-232 시리얼 포트 모방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2개 블루투스 장치간 60개 동시 접속 기능과 다른 2개 애플리케이션의 통신 세그먼트 융합 기능을 제공한다.

Foursquare (포스퀘어) : 구글에서 독립한 데니스 크롤리(Dennis Crowley)가 2009년 3월에 발표한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땅따먹기와 비슷한데 실제 미국 아이들의 땅따먹기 놀이에서 이름을 따왔다.

뉴밴(New Van) : 국내 주요 은행, 증권사와 카드사의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금융 정보 탈취를 노리는 악성 앱.

리빙랩 :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등을 생활 영역에 접목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획이다.

URL(Uniform Resource Locator) : 웹 문서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에 있는 파일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준.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컴퓨터의 위치, 파이 등의 위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정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중개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금융권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데이터 상품 관리, 검색, 거래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 및 거래 플랫폼이다.

네카시즘: 다수의 네티즌들이 특정 개인 또는 사회 등에 대해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공중의 적으로 매도하는 현상

에이비 테스팅(A/B testing): 디지털 마케팅에서 두가지 이상의 시안 중 최적안을

선정하기 위해 시험하는 방법

웹페이지나 앱 개선시 인터페이스를 최적화 하기 위해, 실사용자들을 두집단으로 나누어 기존 디자인A와 새로 개선된 디자인 B를 각각 랜덤으로 보여준 후, 선호도가 높게 나온 쪽으로 결정한다.

다층 구조(Multi-tier Architecture 또는 n-tier Architecture) : 비즈니스 로직을 완전히 분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클라이언트의 사이에 배치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디지털 콘텐츠(객체) 식별자라 한다.

0221

1팀

#하재원#

러디즘: 러디즘은 기계화나 자동화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지만, 자본가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대감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확장. SNS에 대한 그런 부정적 반응과 사회적 문제 인식의 확산을 ‘러디즘 3.0’이라고 규정

​2팀

#유비인#

Hash Tag, (해시태그) : #(샵 기호)와 특정단어(들)을 쓴것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3팀

#신채원#

COCOMO :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예측한 후 이를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책정. 비용 견적의 강도 분석 및 비용 견적의 유연성이 높아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정 개발 기간의 견적에 널리 사용됨.

4팀

#방장#

BFS(너비 우선 탐색, Breadth-first search) : 맹목적 탐색방법의 하나로 시작 정점을 방문한 후 시작 정점에 인접한 모든 정점들을 우선 방문하는 방법. 쉽게 말해 가로(같은 depth),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탐색하는 거

맹목적 탐색(blind search) :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태 공간 그래프를 점차 형성해 가면서 해를 탐색하는 방법

#김재정#

웜(worm):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정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해 감염시킨다. 단순히 자기 복사 기능만 가진 프로그램으로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피해를 야기한다.